

오늘 오늘 오늘이라  
들도 좋아 오늘이여  
오늘 오늘 오늘이라  
날도 좋아 오늘이여  
매일 장삼 오늘이민  
성도 언말 가실서냐?  
오늘 날은 날이 좋아  
들 중에도 상들이여  
날 중에도 상날이여.  
오늘 오늘 오늘이라  
들도 좋아 오늘이여  
오늘 오늘 오늘이여  
날도 좋아 오늘이여  
매일 장삼 오늘이면  
성도 언말 가실서냐  
들 중에도 상들이여  
날 중에도 상날이여  
매일이는 하늘 사름  
장삼이는 지하 사름  
매일이는 남주이고  
장삼이는 예주우다.  
옥황이는 숭년지고  
지황에는 시절 좋아  
매일이광 장삼이는  
지황에 얻어먹으래 오라  
날 존 날은  
일을 흐여 얻어먹되  
쿰을 주민  
돈 훈푼쏙 거시리고  
비온 날은  
신을 삼양 얻어먹되  
쿰을 주민  
돈 훈푼쏙 거시리고  
얻어먹엉 살았수다.  
놈의 일 흐영

얻어먹으멍 살단  
매일이광 장삼이는  
죽연  
저싱왕이 들어가난  
일쿰 거시린 건  
저싱 창궤 그득  
덥쳐 두어졌구나.  
매일이광 장삼이는  
저싱 부제 되였수다.  
세민황제 시절에는  
놈의 공훈 것만  
하영 먹은 세민황제제가  
죽언 사흘만이  
저싱 가난  
저싱서 받을 빚은  
넘어가는  
애기 낳은 예주  
씩 훈못 준 것밖이  
엇어지고  
“나도 도라.  
나도 도라”.  
저싱 빚을 츄자가니.  
빚을 잡아  
인간으로 나올 수가  
엇어지였수다.  
저싱빚 재운 세민황젠  
놈의 일호연 얻어먹으멍  
일쿰 거시리연  
저싱 부제 된  
매일이광 장삼이안티 가고  
수정호연  
저싱돈을  
창쳇문 울안 빚져놓고  
염여대왕신디  
저싱빚을 갚아두고  
사흘만이 깨여나니  
인간으로 돌아오고  
창젯문 울아

세민황제신디  
이싱돈 안내여.  
저싱 간  
매일이광 장삼이를  
청<sup>한</sup>여 놓고  
도임상을 출<sup>르</sup>놓와  
세민황젠 저싱 빗을  
매일이광 장삼이안티  
갚았더니  
매일이광 장삼이는  
오늘 오늘 오늘이라  
매일 장삼 오늘이민  
성도 연말 가실서냐.  
영암 덕진산이  
깊은 물에  
덕진드리 놓아놓고  
가는 사름 오는 사름  
만민적선 받았수다.  
경<sup>한</sup>단에 남은 돈은  
매일이광 장삼이는  
저싱데레 가는 드릴 놓와  
극낙세계 가셨수다.  
매일이광 장삼이는  
정싱부제 되였수다  
이싱부제 되였수다.

<한경면 조수리 여무 54세 조 술생님>

진성기, 『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』, 민속원, 1991, pp.611-612.